

大巡眞理의 宗旨에 관한 研究

金正泰*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宗旨의 실천방안(實踐方案) |
| II. 宗旨(宗旨)의 의미 | 1. 음양합덕(陰陽合德) |
| 1. 음양합덕(陰陽合德) | 2. 신인조화(神人調化) |
| 2. 신인조화(神人調化) | 3. 해원상생(解冤相生) |
| 3. 해원상생(解冤相生) | 4. 도통진경(道通眞境) |
| 4. 도통진경(道通眞境) | IV. 맺음말 |

I. 머리말

대순진리(大巡眞理)란 구천상제(九天上帝)님으로부터 계시(啓示)와 봉서(封書)로써 천부(天賦)의 종통(宗統)을 계승하신 도주(道主)님 그리고 도주님으로부터 유명(遺命)으로 종통을 계승하신 도전(都典)님으로 이어지는 진리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 이러한 진리체계와 신앙체계를 올바

*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1) “본도의 연원(淵源)은 상제님의 계시(봉서)를 받으셔서 종통을 세우신 도주님으로부터 이어 내려 왔다”.(도헌 제12조)

르게 이해하고 정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진리와 신앙체계의 올바른 정립과 이해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연구과제중 하나는 종지에 관한 연구일 것이다. 그 이유는 종지²⁾는 상제님으로부터 천부의 종통을 계승하신 도주 옥황상제님에 의해 제창되어진 것으로 그 특성상 종지는 대순진리의 교의체계와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³⁾

앞서 언급한 종지의 개념 정의에서도 이해되는 것처럼 종지는 대순진리의 핵심적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가장 명료(明瞭)한 용어로 표현하여 커다란 진리체계의 특성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⁴⁾ 따라서 대순진리는 결국 도주님께서 밝히신 종지 안에 그 모든 교의체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종지에 관한 보다 더 명확한 이해를 통해 대순진리가 한층 더 바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지에 관련한 연구와 이해를 통해 우리는 앞서 언급한 진리체계와 신앙체계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지의 특징이 대순진리의 핵심교리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때 그것의 실천방안 즉 종지의 현실적 실현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종지의 의미파악 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또한 도주님께서 마련하신 종지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종통(宗統)이라는 커다란 명제에 관한 올바른 접근과 이해가 가능할 것이며, 종통에 관한 바

“나는 도주님의 유명(遺命)을 직접 받아 종통을 계승하였느니라”. (대순지침 14쪽)

- 2) 종지(宗旨)란 일반적으로 종문(宗門)의 취지나 중요한 교의(教義)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순진리에서 주장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체계를 요약한 종지는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 도통진경(道通眞境)으로 나타난다.
- 3) 대순진리회요람에는 “...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대순진리(大巡眞理)를 면이수지(勉而修之)하고 성지우성(誠之又誠)하여...”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종지가 지니는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요람(要覽)에서는 종지를 대순진리의 당체(當體)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순진리회요람(大巡眞理會要覽) 9쪽 참조
- 4) 대순진리의 핵심사상은 부정적인 한계상황을 드러낸 선천의 세계를 뜯어고치고 후천선경이라는 완성된 세상을 건설하는데 그 교리체계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종지에 관한 이해는 결과적으로 대순진리의 교리체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종지가 어떠한 영향과 작용을 미치는가를 인식케하는데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종지의 인식을 통해 대순진리 출현의 필연성과 목적실현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 그리고 결론에 관한 명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른 이해와 인식은 앞서 언급한 신앙체계와 진리체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종지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지 못함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종지에 관한 이해와 연구를 통해 대순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종지가 지니는 실천적 의미와 그것이 대순진리의 교리체계 안에서 어떠한 구조적 역할을 담당하는가를 살피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典經』과 도전님의 훈시(訓示)말씀을 기록한 대순지침(大巡旨針)⁵⁾ 그리고 그 밖의 관련서적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지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을 발췌하고 그것의 분석을 통하여 종지가 지니는 내용과 의미 그리고 실천방안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 종지가 대순진리의 교리체계 안에서 어떠한 역할과 구조체계를 지니는 가라는 종교적 특성을 결론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5) 대순진리는 구천상제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가장 중요한 교의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해를 위해서는 종통계승에 따라 연결되는 사상체계가 그 의미를 살피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즉 종통계승자의 가르침은 상제님의 교의를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순지침은 대순진리의 소의경전은 아니지만 대순진리가 지니는 특성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종통계승이라는 사상체계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순진리를 이해하는데 있어 종통계승자이신 도전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순지침은 대순진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의 올바른 파악을 위해 대순지침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종지의 의미

이 장에서는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각각의 종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라는 근원적인 내용을 살피는 것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 그것의 이해를 위해 각각의 종지의 목적과 목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각각의 종지가 지니는 의미와 내용을 『典經』과 대순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음양합덕(陰陽合德)

음양합덕⁶⁾은 “음양의 덕을 합친다.”⁷⁾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음양합덕이 지니고 있는 내용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음양에 관한 간단한 개념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음양에 관한 이론체계는 대단히 방대한 내용과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논

6) 『典經』에서는 음양합덕과 관련하여 그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파악되는 내용이 제생(濟生) 43절에 나타나는데 그것의 내용을 살펴보면 「음양상합연후유변화지도(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 음양을 서로 합한 연후에 변화의 도가 있다.)」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것을 분석 해보면 음양합덕은 새로운 변화의 도를 출현케 하는 것이며 새로운 변화의 도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음양합덕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로 주역(周易)의 이론이나 주석(註釋)을 나타낸 역전(易傳)에서는 도(道)는 만물의 운동 변화 법칙이라고 여겼다. 그 내용에서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음양 쌍방이 상호 대립하고 서로 작용하는 법칙을 도(道)라고 한 것이다. 즉 음양의 작용과 조화 즉 합덕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도가 출현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그것을 유추해 보면 음양합덕의 결과는 결국 선천과는 다른 후천의 새로운 변화의 도(道)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것이며 이것을 마련키 위해서는 음양의 상합 즉 합덕이 필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7) 대순진리의 종지(宗旨)를 태극도(太極道)에서는 신조(信條)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태극도요람에서는 ‘음양(陰陽)이 덕(德)을 합하고 신명(神明)과 인간이 잘 조화하며 원통을 풀어 서로 살려주며 도(道)를 통하여 참다운 경지(境地)에 이르는 태극(太極)의 진리다.’ 라고 신조를 설명하고 있다.

문에서는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개념적 차원의 설명을 통해 그 의미를 전하고자 한다.

음양론(陰陽論)은 중국 고래(古來)의 세계관(世界觀)으로 우주(宇宙)나 인간사회의 모든 현상은 결과적으로 음·양의 두가지 기(二氣)가 서로 소장(消長) 즉 소멸과 성장을 통해 발전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자연계의 모든 질서가 유지되어 간다는 설(說)로 후대 이것을 근간으로 더욱 발전하여 음양오행설을 낳게 되었다.

음양은 천지만물중 서로 상대적인 위치나 상태 또는 성질을 나타낸 것으로 남자와 여자, 해와 달, 남과 북, 하늘과 땅, 신과 인간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양(陰陽)은 천지만물중 상대적인 위치나 관계에 있는 것을 이분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므로 천지만물은 결과적으로 음양으로 나누어 나타내고 설명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삼라만상의 도는 음양 쌍방이 상호대립하고 서로 작용하는 법칙이며, 이를 통해 천지만물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부단히 없어지며 새로운 것과 옛것이 교체되는데, 이것이 바로 “낳고 또 생겨나는 것을 역(易)”이라고 한다.⁸⁾ 라는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세계만물의 중요한 속성이며, 사물이 운동변화하고 낳고 또 생겨나 변화하고 바뀌는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해답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물에는 음과 양 두 가지의 서로 상대적이면서도 서로 도와주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측면은 서로 대립하며 상호작용하여 사물로 하여금 운동변화 발전하는 것을 촉진한다.⁹⁾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음양은 각기 그것이 지니고 있는 덕(德)을 통하여 삼라만상을 존재케 하고 유지시키며 발전해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총체적 과정과 내용을 도(道)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음양(陰陽)은 도(道)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¹⁰⁾ 즉 우주 삼라만상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8) 계사(繫辭) 상전(上傳)에 생생지위역(生生之謂易)이라는 내용은 이를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 권호(權瑚) 역(譯), 도(道), (서울:동문선), 1995, 53쪽 참조

10) 도(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경위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대순지침 18쪽

도(道)로부터 음양이 출현하여 그것의 작용과 조화를 통해 만물이 형성되고 발전해 간다는 사실을 기초할 때 음양합덕은 삼라만상의 올바른 균형과 조화작용을 통해 완성된 세계를 실현시키는데 큰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우주론(宇宙論)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것의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대순진리의 우주관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선천세계는 대순진리의 우주관(宇宙觀)¹¹⁾에 비추어 볼 때 생장시대(生長時代)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생장시대의 큰 특징은 분열을 통한 발달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천세계는 새로운 시작과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시대이므로 그를 위해 도(道)로부터 음양의 분화(分化)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 다양한 존재의 존립이 가능케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천시대의 다양성은 결국 투쟁과 대립으로 이어져 그로 인해 나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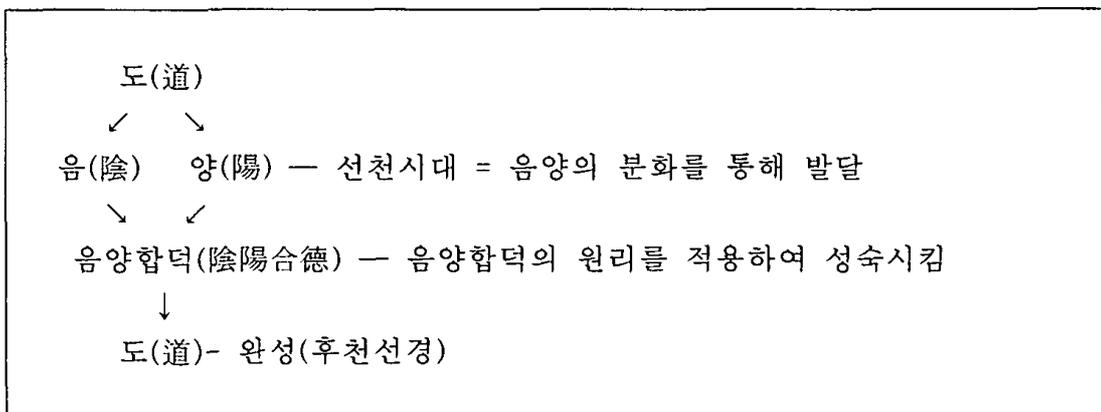
11) 대순진리의 우주관은 개벽사상(開闢思想)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데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개벽사상은 후천개벽사상(後天開闢思想)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벽(開闢)의 사전적(辭典的)인 의미는 “~이 시작된다.” 또는 “~이 열린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후천개벽의 사전적 의미는 「후천이 시작된다.」 또는 「후천이 열린다.」 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후천개벽은 「후천이 열린다.」 또는 「후천이 시작된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순진리에 나타난 후천개벽은 앞서 살핀 뜻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典經』에서 30절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후천개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

라는 후천개벽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때 대순진리에서 의미하는 후천개벽의 참뜻은 [천지가 성공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만물이 결실을 이루는 가을과 같은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후천선경은 가을을 의미하는 후천개벽을 통해 열린다고 볼 때 그 이전의 선천세계는(先天世界)는 당연히 봄과 여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봄여름의 특징이 분열 발달을 나타내는 팽창으로 표현된다면 후천은 통합과 성숙을 의미하는 수축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천은 생장시대(生長時代)로 그리고 후천은 염장시대(斂藏時代)라는 정의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것을 주재(主宰)하는 존재가 구천상제님이라는 사실을 『典經』 교법 3장 27절의 내용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나는 생장염장(生長斂藏)의 사의(四義)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위이화(無爲而化)니라.”

원과 한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원한이라는 부정적 결과의 출현은 상도(常道)를 무너뜨리게 하는 또 다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선천세계는 진멸지경(盡滅之境)이라는 한계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순진리의 출현을 낳게 되었고 이러한 대순진리의 성립배경은 선천의 현실로부터 나타나며 음양합덕의 내용 또한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감안해볼 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순진리의 특성¹²⁾상 음양합덕은 결과적으로 선천세계의 부정적 원인과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선천세계가 음양의 분화를 통해 발달을 추구했던 시대였지만 음양의 부조화 즉 음양이 지니고 있는 균형이 깨어지고 그로 인해 그 덕(德)을 실현시킬 수 없었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시대였다면 후천시대는 분열하였던 것을 통합하는 시대 다시말하면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그것이 지니고 있는 덕(德)이 서로 합쳐져 이상(理想)을 실현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양이 지니고 있는 덕을 합덕시켜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부작용을 해소하여 완성을 이룬다는 문제해결의 커다란 구도를 제시하는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그림 1 > 음양합덕(陰陽合德) 도(圖)

12) 대순진리의 특징은 선천의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의미가 사상체계의 핵심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음양합덕의 결과는 절대와 완성을 의미하는 도(道) 다시말하면 새로운 변화의 도의 실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되므로 음양합덕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도(道)를 추구하고 실현시키는데 그것의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후천선경 즉 도통진경을 이루는 가장 근원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典經』에서는 이러한 음양합덕의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해 보기로 하겠다.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아들여야 하느니라.¹³⁾ <예문 1>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삼상(三相)¹⁴⁾의 탓으로 음양이 고르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거주성명 서신사명 좌상 우상 팔판 십이백 현감 현령 황극 후비소(居住姓名西神司命左相右相八判十二伯縣監縣令皇極後妃所)」라 써서 광찬에게…¹⁵⁾ <예문 2>

… 음양(陰陽) 두 글자를 써서 약방 윗 벽에 붙이고 그 위에 백지를 덧붙이고 「누가 걸리는가 보라」 하시니라. 한참 후에 「나약한 자가 걸렸다」고 말씀하셨도다.¹⁶⁾ <예문 3>

상제께서 어느날 후천에서의 음양도수를 조정하시려고 종도들에게 오주를 수련케 하셨도다. 종도들이 수련을 끝내고 각각 자리를 정하니 상제께서 종이쪽지를 나누어 주시면서 「후천 음양도수를 보려 하노라. 각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점을 찍어 표시하라」고 이르시니 종도들이 마음에 있는 대로 점을 찍어 올리니라. 응종은 두 점, 경수는 세 점, 내성은 여덟 점, 경석은 열두 점, 공신은 한 점을 찍었는데 아홉점이 없으니 「자고로 일남구녀란 말은 알 수 없도다」고 말씀하시고 내성에게 「팔선녀란 말이 있어서 여덟점을 쳤느냐」고 묻고 응종과 경수에게 「노인들이 두 아내를 원하나 어찌 감당하리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후천에서는 새로운 기력이 나지 아니하리까」고 되물으니 「그럴 듯 하도다」고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경석에게 「너는 무슨 아내를 열 둘씩이나 원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열두 제국에 하나씩

13) 『典經』, 교법 1장 62절

14) 삼상(三相)은 삼정승(三政丞) 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의미한다.

15) 『典經』, 공사 2장 20절

16) 『典經』, 행록 4장 33절

아내를 두어야 만족하겠나이다」고 대답하니 이 말을 듣고 상제께서는 다시 「그럴 듯 하도다」고 말씀을 건너시고 공신을 돌아보면서 「경석은 열 들씩이나 원하는데 너는 어찌 하나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건곤(乾坤)이 있을 따름이오 이곤(二坤)이 있을 수 없사오니 일음 일양이 원리인 줄 아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는 「너의 말이 옳도다」고 하시고 공사를 잘 보았으니 「손님 대접을 잘하라」고 분부 하셨도다. 공신이 말씀대로 봉행하였느니라. 상제께서 이 음양도수를 끝내고 공신에게 「너는 정음 정양의 도수니 그 기운을 잘 견디어 받고 정심으로 수련하라」고 분부하시고 「문왕(文王)의 도수와 이윤(伊尹)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말으려면 극히 어려우니라」고 일러 주셨도다.¹⁷⁾

<예문 4>

상제께서 하루는 공사를 행하시고 「대장부(大丈夫) 대장부(大丈夫)」라 써서 불사르셨도다.¹⁸⁾ <예문 5>

상제께서 중도들에게 「후천에서는 약한자가 도움을 얻으며 병든 자가 일어나며 천한자가 높아지며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을 것이요. 강하고 부하고 귀하고 지혜로운 자는 다 스스로 꺾일지라」고 이르셨도다.¹⁹⁾ <예문 6>

위에서 인용한 『典經』의 내용은 음양합덕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파악되는 특징적인 몇 가지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음양합덕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문 1>과 <예문 2>의 『典經』내용에서 파악되는 중요한 사실은 상제께서는 선천세계를 음양의 균형이 고르지 못한 세계이며 그것이 지니고 있는 덕이 발현되지 못한 시대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세계의 폐단의 결과는 <예문 3>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지적하시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문 2> <예문 4> <예문 5>에서 보이는 것처럼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도수조정의 공사를 행하셨는데 그 결과는 <예문 6>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典經』의 내용은 음양합덕과 관련한 대표적인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흥미 있는 사실은 상제께서는

17) 『典經』, 공사 2장 16절

18) 『典經』, 교법 2장 57절

19) 『典經』, 교법 2장 11절

인간세계의 계층구조를 나약한 자와 그렇지 않은 상대적으로 강한자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음양으로 파악해 본다면 선천세계는 양(陽)적인 계층 즉 강한계층이 나약한 계층 즉 음(陰)에 해당하는 계층을 지배하고 주도해 왔던 세상이었고, 그 결과 음(陰)에 해당되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양(陽)에 해당하는 계층에 대해 불만과 원한을 갖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화평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음양도수의 새로운 정립과 정리가 필요한 것이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典經』에서는 정음정양²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예문 3>에 나타나는 나약한 자가 걸렸다는 내용은 대단히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예문 6>의 내용과 음양합덕의 원리에 비추어서 그 의미를 고려해 본다면 나약한 자는 걸림이 되는 대상 즉 구제(救濟)의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음양의 조화와 합덕을 위해서는 걸림이 되는 대상을 구제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임을 알 수 있고 음양합덕의 실현 결과는 후천의 차별이 없는 세계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²¹⁾ 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음양합덕의 의미는 음양의 덕을 합하여 완성을 이룬다는 뜻으로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상제께서 음양의 차별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로 인해 발생된 부정적인 결과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음양합덕의 원리를 통해 천지 또는 음양이 지니고 있는 모든 덕을 합치고 그것을 통해 대덕(大德)²²⁾발현케 하여 완성을 이룬다

20) 선천세계는 억음존양(抑陰尊陽)으로 표현되는 세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음양의 불균형으로 인한 폐해는 결과적으로 선천세계를 진멸지경에 처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억음존양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제께서는 정음정양(正陰正陽)의 원리를 바탕으로 천지공사를 처결하셨는데, 정음정양이란 치우쳐 있었던 음양을 바르게 조정하여 균형에 맞게 바로 잡아 음양합덕을 이루는 중요한 원리로 이해될 수 있다.

21) 『典經』 교법 1장 68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후천에서는 그 님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는 내용과 『典經』, 예시 81절의 ...빈부의 차별이 없다... 는 내용은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22) 제생 43의 내용을 참조하면 三德卽天德地德人德也 統合謂之大德也(삼덕즉천덕지덕인덕야 통합위대덕야 '세가지의 덕은 하늘의 덕 땅의 덕 사람의 덕인데 그것을 모두 합친 것을 큰덕이라고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 내용을

는 해원상생의 이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음양합덕이 천지만물을 성숙시키고 완성시키는 원리로 보았을 때 음양의 합덕과 조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의 선행 조건이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의 조건은 음양의 합덕을 위해서는 먼저 음양의 대등한 관계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음양의 대등함이 없이는 음양합덕이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제께서는 이러한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문 4> <예문 5>에서 보이는 것처럼 음양을 조정하는 공사를 통해 그 도수를 새롭게 정립하셨을 것이다. 즉 음양을 대등한 위치에 서게하여 그것의 조화와 합덕을 모색하셨던 것이다. 그 결과 후천에서는 음양합덕의 원리를 통해 만유의 조화가 실현되는 것이며, 차별이 없는 완성세계가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음양합덕을 위한 두 번째의 전제조건은 음양의 합덕을 위해서는 먼저 음양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성숙한 남성과 성숙한 여성이 결혼을 통해 인격의 완성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미성숙한 아이들도 결혼을 할 수는 있지만 결혼의 의미와 목적에 부합하지는 못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마련되어질 때 음양합덕이 가능함으로 그와 관련한 『典經』 내용인 <예문 5>는 그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즉 음양의 성숙이 없이는 합덕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대장부(大丈夫) 대장부(大丈婦)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공사는 그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대장부(大丈夫)는 선천에서 성숙한 남성의 품모와 인격을 갖춘 사람을 별칭(別稱)하는 표현이었으므로 여성에게는 해당되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표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장부(大丈婦)라는 호칭을 쓰셨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사를 행하신 이유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은 음양합덕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상제님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면서 그것을 통해 천지의 완성시킨다는 상제님의 의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살펴보면 천지인의 덕이 합쳐질 때 대덕이 실현되며 그것은 음양합덕의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것은 후천선경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안으로 천지의 모든 것이 음양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존재하고 발전되어 간다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음양합덕은 결과적으로 천지완성시킬 수 있는 대순진리의 목적실현을 위한 방법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것이다. 따라서 후천선경은 음양의 합덕과 조화의 결과로 정음정양(正陰正陽)이 실현되어 나타나는 완성된 세상이며, 음양합덕은 이러한 가능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중요한 원리인 것이다. 그 결과 후천에서는 음양합덕의 원리를 통해 만유의 조화가 실현되는 것이며, 차별이 없는 완성세계가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게 되는 것이다.

2. 신인조화(神人調化)

앞서 전술한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원리를 바탕으로 생각해볼 때 신인조화(神人調化)는 음양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신과 인간²³⁾의 조화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 파악된다. 대순진리에서의 음양합덕의 적용 대상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천지만물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신과 인간도 예외일수는 없다.²⁴⁾ 이러한 이유로 음양합덕의 원리를 신과 인간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당연히 신인조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신과 인간의 조화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신인조화(神人調化)라는 용어에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특징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신인조화에서 쓰여지고 있는 조화(調化)의 용례가 일반적인 용례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조화와 관련된 용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조화(調和)와 조화(造化)이다.

조화(調和)는 고를: 조(調) 자(字)와 온화할: 화(和) 자(字)가 합쳐져

23) 『典經』, 제생 43절의 내용을 참조하면 인위양 신위음(人爲陽 神爲陰 인간은 양이며 신은 음이다)이라는 표현을 통해 신과 인간이 음양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잘 밝혀주고 있다.

24)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개벽장(開闢長)을 말함이니라. 『典經』, 공사 1장 1절

① 고르게하여 알맞게 맞춤.

② 서로 모순됨이 없이 잘 어울림 시킨다는 뜻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용례인 조화(造化)는 지을: 조(造) 자(字)와
 될: 화(化) 자(字)가 합쳐진 용례로 그 의미는

① 천지 자연의 이치를 가르키는 말로, 모든 물건을 만들어 기른다는 뜻.

②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이 신통하게 된 사물을 가리키는 말. 로
 나타난다.

앞서 전술한 것처럼 이러한 일반적인 용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인조화
 에서는 조화(調化)라는 새로운 용례로 신과 인간의 조화적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대단히 흥미로운 관심을 갖게 된다. 즉 조화적 관계를 나타내
 는 기존의 용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례 즉 조어(造語)로써 신인
 조화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의 의미를
 밝히는 일은 아마도 신인조화에 관한 해석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순진리에 나타난 신인조화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신과 인간의 조화적
 관계를 가능케 하는 이론적 배경을 살피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
 를 위해서는 대순진리에 나타난 신관(神觀)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신관(神觀)이 매우 방대한 내용을 지
 니고 있는 이유로 인해 그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것을 대신해서
 『典經』에 나타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내용을 살
 피보기로 하겠다.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
 이며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²⁵⁾ <예문 1>

김송환이 사후 일을 여쭙어 물으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사람에게 혼과 백이 있나니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다가 사대(四代)를 넘긴 후로 영도 되고 선도 되니라. 백은 땅으로 돌아가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니라」 하셨도다.²⁶⁾
 <예문 2>

신은 사람이 먹는 대로 흠향하니라.²⁷⁾ <예문 3>

...상제께서 「교중(敎中)이나 가중(家中)에 분쟁이 일어나면 신정(神政)이 문란하여지나니 그것을 그대로 두면 세상에 큰 재앙이 이르게 되니라.」 ...²⁸⁾ <예문 4>

사람들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²⁹⁾ <예문 5>

위의 『典經』 내용은 사람과 신이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대표적인 내용들인데 먼저 <예문 1>의 내용은 범신론(汎神論)³⁰⁾적인 신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분석해보면 결국 인간과 신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며, 모든 존재는 그 안에 신이 내재(內在)함으로써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예문 2> <예문 3>은 인간과 신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이를 토대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은 인간이 죽은 뒤에 변화되어 나타나는 존재로 그 정의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은 결국 인간과 매우 깊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신은 인간존재의 또다른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문 3>은 신이 인간과 같은 인격을 지닌 존재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은 모든 것에 내재하고 있으므로, 인간 역시 그

25) 『典經』, 교법 3장 2절

26) 『典經』, 교법 1장 50절

27) 『典經』, 교법 1장 49절

28) 『典經』, 행록 3장 8절

29) 『典經』, 교법 1장 54절

30) 범신론은 일체(一切)의 모든 만유(萬有)가 신(神)이며, 신은 일체의 만유라고 하는 종교관 내지 철학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교의 철리(哲理), 그리스 사상, 근대의 스피노자·피테·셸링 등의 사상도 이에 속한다. 범일론(汎一論). 만유신론이라고도 한다.

영역에 속하게 되며 그러한 이유로 인해 신과 인간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신은 인격적인 면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사회에 일어나는 일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게 되며, 그것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예문 4> <예문 5>는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인간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신은 인간과 조화가 가능한 존재이며, 예문의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神)은 모든 것에 내재하고 있으므로 신과의 조화는 결과적으로 만유의 조화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세상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신과의 조화가 모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인 것이며, 이를 통해 완성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대순진리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의 완성은 인간의 성숙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만이 아닌 인간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신과의 조화를 통한 완성이 모색되어야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세상의 완성을 위한 방법과 그를 위한 적용범위를 인간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신의 영역에 까지 확대하여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특이할 만한 사실인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에 의해 신인조화가 가능한가를 『典經』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신명이 사람에게 드나들 수 있게 하시고…³¹⁾ <예문 1>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 속에 드나들게하여 다 고쳐 쓰리라
…³²⁾ <예문 2>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니라.³³⁾
<예문 3>

31) 『典經』, 예서 7절

32) 『典經』, 교법 3장 1절

33) 『典經』, 교법 3장 4절

…심야자귀신지추기야문호야도로야(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³⁴⁾

<예문 4>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느니라…³⁵⁾

<예문 5>

위의 『典經』내용은 신인조화의 방법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문 1·2·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명³⁶⁾을 인간의 가슴과 뱃속 그리고 마음에 출입³⁷⁾케 하여 부족한 것을 고쳐 쓴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결국 신명을 인간에게 출입케하여 신인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태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결과적으로 앞서 언급한 음양합덕의 내용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신인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과 신이 대등한 입장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관계 속에서 신과 인간의 성숙이 전제될 때 인간과 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원칙에 의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명이라는 보다 초월적 존재와의 합일을 위해서는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 나가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신명은 인간과의 관계(출입)를 통해 그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것의 실현 가능성의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전개될 신인조화의 실천방안에서 그것을 좀더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신인조화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는 물음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초미(焦眉)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신명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해답은 앞서 잠시 언

34) 『典經』, 행록 3장 44절

35) 『典經』, 예시 10절

36) 신명(神明)은 천지신명(天地神明)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순진리에서 천지신명은 상제님의 명(命)에 의해 천지를 주관한다고 해석되어지고 있다.

37) 가슴과 뱃속 그리고 마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 즉 신체적 구조나 명칭을 의미하는 내용이 아닌 인간을 주관하는 근본적인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고래(古來)로부터 가슴은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되어 왔었고, 뱃속은 인간의 오장육부를 담고 있는 기관으로 오장의 허실(虛實)은 인간의 체질(體質)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체질은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因子)로 파악되어 왔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음은 인간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근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급한 신인조화라는 용어의 해석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신인조화에서 보여지는 새로운 용례인 조화(調化)는 조화(調和)에서 조(調)자(字)와 조화(造化)에서 화(化)자(字)가 지나는 의미를 합성하여 두 가지의 뜻을 함께 표현하고 그 의미를 나타내는 조어(造語)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대순진리에서 표현하고 있는 신인조화는 기존에서는 볼 수 없는 다시말하면 이제까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³⁸⁾ 기존의 용례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새로운 표현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조어(造語)로서 그 의미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가정(假定)을 해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정(假定)을 바탕으로 신인조화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조화(調化)의 용례에서 조(調)자(字)가 지나는 의미를 살펴보겠다. 이와 관련한 『典經』의 내용을 참조하면 신과 인간이 조화(調化)에서는 인간과 신이 일대일의 관계를 통해 신인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닌 다양한 능력과 특수한 신분을 지닌 다수(多數)의 신명과 인간이 조화적 관계를 이룬다³⁹⁾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조화(調和)의 중요성은 필연성을 지니게 된다.

즉 단수(單數)가 아닌 다수(多數)의 신명과 인간이 조화(調和)적 관계를 이

38) 『典經』의 내용에서는 상제님의 독창적인 공사의 방법과 원리, 그리고 진리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을 『典經』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典經』』, 공사, 1장 2절

“도주께서 통사동(通士洞) 재실에서 어느날 「오도자 금불문 고불문지도야(吾道者今不聞古不聞之道也 나의 도는 옛날에도 지금도 들을 수 없는 도이다.)라 믿고 닦기가 어려우니라」 하시고 다시 추종하는 여러 사람들 앞에 모으고 무극대운(無極大運)의 해원상생대도(解冤相生大道)의 진리를 설법하시어 도(道)를 밝혀 주셨도다”. 『『典經』』, 교운, 2장 18절

39) 『典經』, 교운 1장 41절의 도통 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 는 내용에서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라는 내용에 주목해 볼 때 신인조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도통은 한사람의 신명에 의해 주관되는 것이 아닌 유불선의 도통신들에 의해 결정되어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복수(複數)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므로 인간과 신명의 신인조화의 관계는 일대일이 아닌 인간이 그 닦은 바의 공덕(功德)과 수도(修道)여하에 따라 다수의 신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루기 위해서는 서로 모순됨이 없이 잘 어울리는 관계를 의미하는 조화(調和)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신 둘 중 어느 하나의 일방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유지되는 관계체⁴⁰⁾가 아닌 <예문 5>에 나타나는 상호 협조적이며 상생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 신인조화의 본래적 모습이라면 그러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화(調和)에서 나타나는 조(調)자(字) 차용(借用)하여,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은 신인조화의 용례에서 화(化)자(字)가 지니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겠다. 대순진리에서 신인조화의 결과는 앞서 살핀 것처럼 도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순진리에서 인간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신인조화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인조화의 결과는 인간의 신선화(神仙化) 다시말하면 지상신선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인조화의 결과인 신선은 결코 반신반인(半神半人)⁴¹⁾과 같은 특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⁴²⁾ 이것은 결국 신인조화를 이룰 경우 반신반인(半神半人)적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것과는 다른 별개적 존재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로 신·인(神·人)과 신선(神仙)은 그 격(格)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신선은 일반적으로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존재로 이해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인간은 그 수명이 유한(有限)한 존재로 인식된다. 또한 신선은 신과 구별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과 인간의 조화로 나타난 신선은 화학적 변화⁴³⁾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40) 일반적으로 무속인(巫俗人)은 강신무(降神巫)와 세습무(世習巫)로 구분되는데 강신무는 신(神)을 받아 무당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신 또는 접신(接神)되어 무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결국 일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조화적 관계와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1) 이것은 화학(化學)에서 말하는 물리적 변화(physical change)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물리적 변화는 물질의 성분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다만 그 상태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물체의 운동·증발·응고 등을 들 수 있다. 즉 인간의 특성과 신의 특성을 함께 지닌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말한다.

42) 대순진리의 목적 중에는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 인간개조(人間改造)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신선화가 대순진리의 목적임을 잘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다.

43) 화학적 변화(chemical change)는 물질과 물질이 서로 반응했을 때 전혀 다른 물질로 변화한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새로운 창조적 존재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신인조화(神人調化)의 결과는 선천현실의 한계를 극복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를 표현하는 조화(造化)에서 화(化) 자(字)가 지닌 뜻을 통해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후천선경은 선천세계와는 달리 완성을 이루는 도통진경(道通眞境)의 세계로 표현되는데 그러한 도통진경의 건설을 가능케 하는 원리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음양합덕과 신인조화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후천세계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음양합덕을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음양관계를 이루고 있는 신과 인간도 합덕 즉 조화(調化)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후천에서는 선천세계와는 달리 신과 인간이 양분(兩分)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합덕 즉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대순진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과 우주의 완성에 있다고 볼 때 그 완성을 위한 방편으로 인간과 신의 조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순진리에서 제시하는 인간완성의 방법은 신인조화를 통한 도통이며, 그것을 통해 가능하다는 내용을 염두해 볼 때 인간완성을 위해서는 결국 인간과 신의 조화 그 중에서도 도통신과의 조화는 당연히 그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처럼 신인조화는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자인 인간과 신의 조화적 관계를 통해 완성을 이루는 후천세계의 단면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중요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음양합덕의 원리가 전체적인 구도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신인조화는 세부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3. 해원상생(解冤相生)

해원상생은 쌓였던 원(冤)⁴⁴⁾을 풀고 상생(相生)⁴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44) 원(冤)은 “屈也，從 宀 冤，冤在 宀 下 不得 走 益 屈 折 也，枉 曲 之 意 敗 此”라 풀이되는 데 이는 “굽다, 구부리다, 한 마리 토끼가 덮개에 갇혀서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결국 무고하게 덮어쓴 죄로 억울함과 원통함이 쌓인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박용철(朴龍哲), 해원상생에서 원(冤)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대진논총, 67쪽.

것으로 대순진리를 나타내는 대명사(代名詞)로 쓰여질 만큼 대순진리의 교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나타내는 종지인 것이다. 따라서 그 중요성만큼이나 그 내용과 의미가 대단히 방대한 것이어서 해원상생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순진리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의 바탕이 필요할 정도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장에서는 해원상생 출현의 필연성과 그 배경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해원상생의 출현배경과 그 출현의 필연성(必然性)은 선천의 현실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순진리에서는 선천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

설문해자 참조

45) 상생(相生)의 어원(語源)은 오행(五行)의 두가지 작용인 상생과 상극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대순진리에서의 상생은 오행에서 보이는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오행의 상생작용은 목→화→토→금→수→목 이라는 관계에 따라 상생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대순진리에서 나타내는 상생(相生)은 이러한 일방적(一方的)인 관계나 적용범위의 한계(限界)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일방적 관계나 대상의 제약을 갖지 않고 모든 것에 상생의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典經』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수화금목대시이성 수생어화 고천하무상극지리”(水火金木待時以成 水生於火 故天下無相克之理 수화금목이 때를 기다려 이루었으니(성공하니) 불에서 물이 생(生)하니 고로 천하에 상극이 없는 이치이다.) 『典經』, 교운 1장 66절 현무경.

수생어화 화생어수 금생어목 목생어금 기용가지연후 방가위신인야(水生於火 火生於水 金生於木 木生於金 其用可知然後 方可謂神人也 “화에서 수가 생하고 수에서 화가 생하고 목에서 금이 생하고 금에서 목이 생하니 그것을 쓰고 아는 연후에 가히 신인(神人)이라고 이를 수 있다.”) 『典經』, 제생 43절

결론적으로 대순진리에서 표현되고 있는 상생은 기존의 오행에서 나타나는 상생과 그 내용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오행에서의 상생은 서로 서로 주고받는 상생적 관계가 아닌 목→화→토→금→수→목→이라는 일방적인 관계를 통한 상생이라면 대순진리에 나타 상생은 일방적인 상생이 아닌 서로 서로 주고받고 생하게 하는 관계를(수↔화 목↔금) 나타내는 새로운 의미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증산은 선천과 후천을 상극과 상생으로 대비시킨 것은 기존의 음양오행설의 개념적 규정에 기초하여 종교적 구원을 강조한 주장으로 이해된다. 지나간 세계와 앞으로 올 세계를 엄격히 구분하여 그 변혁의 주체와 중심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에서 증산은 상극과 상생을 세계를 지배하는 기본 원리로서 새롭게 해석했던 것이다. 상극이나 상생만이 지배하는 세계는 상정할 수 없으므로 증산이 주장한 선천은 상극이 후천은 상생이 보다 우세한 원리로 전개되는 세계라고 이해된다.”고 하였다. 김탁,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5, 78쪽

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 46)

라는 내용에서 그것의 분명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위의 『典經』 내용은 상제께서 진단하신 선천세계의 실상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그것의 결론은 선천세계는 참혹한 세상으로 구제(救濟)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세상이라는 것이며, 인간과 사물 즉 세상에 모든 것이 상극에 지배되어 원한이 쌓이고 맺혀 그것으로 인하여 상도(常道)가 무너져 무도병(無道病)에 걸린 진멸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을 광구(匡球)⁴⁷⁾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을 풀어 상생하는 방법 즉 해원상생(解冤相生)이 그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해원상생의 적용범위는 선천세계의 전체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⁴⁸⁾이므로 해원상생은 대순진리의 목적인 후천선경을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것은 타종교의 사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진리인 것이다.⁴⁹⁾

따라서 해원(解冤)을 위한 방법 또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

46) 『典經』, 공사 1장 3절 참조

47) 대순진리에서는 단순히 기존의 것을 구제하는 차원을 뛰어 넘어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 그것의 해결을 통해 완전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천지공사(天地公事)가 나타나는데, 천지공사의 내용에는 기존의 것 즉 상극적인 것을 뜯어 고치는 개조(改造)의 방법과 상생적인 것을 지어 만드는 창조(創造)의 방법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공사적 내용을 광구(匡球)라고 할 수 있다.

48) 『典經』, 행록 2장 15절의 내용을 참조하면 상제께서 대원사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오셨을 때 산속의 금수(禽獸)의 무리들이 모여들어 상제님을 반기면서 무엇을 애원하는 듯 하였는데 상제께서는 이러한 광경을 보시고 「너희 무리들도 후천 해원을 구하려 함인가」 하셨는데 금수들이 이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머리를 숙였는데 상제께서 이를 보시고 「알았으니 물러들 가있어라」 하신 내용이 나타난다. 이는 해원의 대상이 인간뿐이 아닌 금수초목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9) 김형효는 우리민족의 고유사상인 풍류도(風流道)에서도 실행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새로운 사상이 바로 상제님의 해원상생사상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상제님의 사상이 한국사상사에서 저항(抵抗)의 병리학(病理學)을 대신하여 창조(創造)의 생리학(生理學)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김형효, 원시반본(原始返本)과 해원사상에 대한 철학적 성찰, 증산사상연구, 제 5집 (증산사상연구회), 48쪽~57쪽 참조.

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장에서는 그 중 『典經』에 나타난 몇 가지의 대표적인 내용을 발췌하여 그것을 천·지·인 삼계로 나누어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典經』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고 그 의미를 간략하게 분석하여 그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원상생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살핌으로서 그 방법적 특징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참고로 신계(神界)는 천(天)의 범주에 적용시켰으며 지계(地界)는 인간과 신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 규정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천계(天界-신계(神界))의 해원방법과 그 내용

㉞ 자손을 두지 못한 신(神)을 중천신(中天神)이라 하는데, 중천신은 자손을 두지 못했으므로 자손들로부터 제사를 받아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자손을 둔 황천신(黃天神)으로 부터 물과 밥을 얻어먹으면서 존재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중천신은 원한을 품고 이것을 상제께 하소연했는데 상제께서는 중천신에게 복을 주어 그를 해원시킨다는 내용이다.⁵⁰⁾

㉟ 동학(東學)은 본래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했는데 그에 가담한 사람은 각기 왕후장상(王后將相)을 꿈꾸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자 끌려가서 죽게된 사람이 수만명이 되었다. 그 신명을 그대로 두면 후천에는 역도(逆度)에 걸려 정사가 어지러워지므로 동학의 총대를 지낸 차경석에게 동학신명의 해원을 차경석에게 붙여 이 자리로부터 왕후장상의 해원을 하게 하셨다.⁵¹⁾ 참고로 차경석은 상제님의 화천이후에 보천교(普天教)를 만들어 자신을 천자로 불리게 하면서 천자등극설을 내세워 새로운 왕조를 건설한다고 하여 커다란 교세를 떨쳤는데 이는 차경석을 통해 동학신명을 해원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㊱ 동학사(東鶴寺)에는 동계사(東雞寺)에 삼은각(三隱閣)과 단종왕의 숙모전(肅慕殿)이 있고 생육신과 사육신을 추배한 동묘와 서묘가 있는데 동학사

50) 『典經』, 공사 1장 29절의 내용

51) 『典經』, 공사 2장 19절의 내용

염화실에서 이렛동안 신명 해원의 공사를 보셨는데 여기에는 신라, 고려, 조선의 삼대 동안 충의(忠義) 지사(志士)였으나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어 한을 남기고 간 신명을 초혼(招魂)한 곳이다.⁵²⁾

㉔ 만고(萬古)의 역신(逆神)을 해원하여 모두 성수(星宿)로 붙여 보내는 해원 공사를 보셨는데 역신은 포부를 이루지 못한 자이므로 원한이 천지에 가득하였는데 세상사람들은 도리어 그 일을 밋게 보아 흉악의 머리를 삼아 육설로 역적놈이라 명칭을 붙였으므로 모든 역신은 이것을 크게 싫어하여 만물중에 시비가 없는 성수로 보내 신명을 해원하셨다.⁵³⁾

㉕ 진묵(震默)은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 자 하였으나 김봉곡(金鳳谷)에게 참혹하게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계발에 역사 하였으나 진묵을 해원시키고 고국으로 초혼(招魂)하여 선경건설에 역사케 하셨다.⁵⁴⁾

㉖ 신농씨(神農氏)가 농사와 의약을 천하에 펼쳤으며 세상사람들은 그 공덕을 몰랐고 강태공(姜太公)이 부국강병의 술법을 천하에 내어놓아 그 덕으로 대업을 이룬 사람이 있었으나 그 공덕을 앙모하나 보답하지 않고 다만 디딜방아에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강태공 조작이라 써 붙일 뿐이니 도리에 합당치 않음을 지적하시고 해원시대를 당하여 모든 신명이 신농과 태공의 은혜에 보답케 하셨다.⁵⁵⁾

※지계(地界)의 해원방법과 그 내용

㉗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제께서 대원사에서 공부를 마치신 후 금수(禽獸)들이 후천에서의 해원을 바라였으므로 그 뜻을 수락하셨다.⁵⁶⁾

52) 『典經』, 교운 2장 57절의 내용

53) 『典經』, 교법 3장 6절의 내용

54) 『典經』, 권지 2장 37절의 내용

55) 『典經』, 예시 22절의 내용

56) 『典經』, 행록 2장 15절의 내용

㉔ 지기(地氣)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였다고 지적하시고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 후천선경건설을 위한 지기 통일 공사를 보셨다.⁵⁷⁾

㉕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않았으므로 지덕(地德)이 큰 것을 몰랐음을 지적하시고 이후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아들여야 함을 이르셨다.⁵⁸⁾

㉖ 상제께서는 해원시대를 맞이케하여 버림을 받았던 땅에도 기운을 돌아오게 하는 공사를 보셨다.⁵⁹⁾

※인계(人界)의 해원방법과 그 내용

㉗ 김광찬에게 촌양반과 아전의 화해를 통해 천하를 해원한다는 공사를 보셨다.⁶⁰⁾

㉘ 상제께서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 고 박공우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때 공우가 상제를 모시고 태인읍을 지나는데 두 노파가 상제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기에 상제께서 길을 비켜 외면하시는 공사를 통해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해원공사를 보셨다.⁶¹⁾

57) 『典經』, 공사 3장 5~6절의 내용

58) 『典經』, 교법 1장 62절의 내용

59) 『典經』, 교법 1장 67절의 내용

60) 『典經』, 공사 1장 25절의 내용

61) 『典經』, 공사 1장 32절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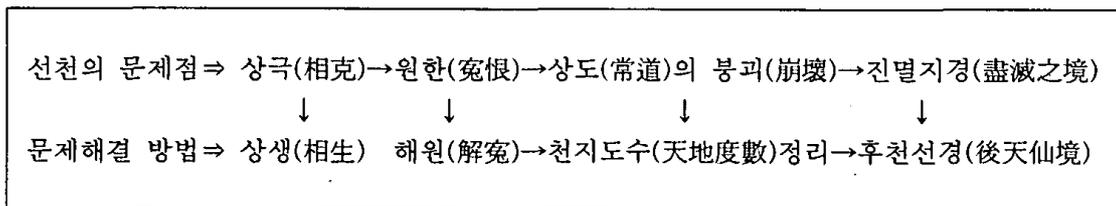
- ㉔ 바둑의 시조인 단주의 해원공사를 위해 회문산(回文山) 오선위기혈(五仙圍碁穴)에 붙여 조선의 국운을 돌리는 공사를 보셨다.⁶²⁾
- ㉕ 최익현과 박영효의 해원공사⁶³⁾
- ㉖ 전명숙과 최수운의 해원공사⁶⁴⁾
- ㉗ 후천선경건설을 위해 원의 시초인 단주의 원을 해원하는 공사를 보셨다.⁶⁵⁾
- ㉘ 진시황의 해원공사⁶⁶⁾
- ㉙ 한국과 중국의 해원을 위한 대중화(大中華) 보은공사(報恩公事)를 보셨다.⁶⁷⁾
- ㉚ 김경흔이 얻은 태을주(太乙呪)를 해원하는 공사를 보셨다.⁶⁸⁾
- ㉛ 해원시대를 당하여 천한사람에게 가르침(敎)을 전하는 공사로써 여섯명의 무당에게 교(敎)를 전하는 공사를 보셨다.⁶⁹⁾
- ㉜ 반상의 차별로 인한 원(冤) 해원하는 공사를 보셨다.⁷⁰⁾
- ㉝ 천하대순을 통해 약소민족을 해원하는 공사를 보셨다.⁷¹⁾

62) 『典經』, 공사 2장 3절의 내용
 63) 『典經』, 공사 2장 22절의 내용
 64) 『典經』, 공사 3장 2절의 내용
 65) 『典經』, 공사 3장 4절의 내용
 66) 『典經』, 공사 3장 17절의 내용
 67) 『典經』, 공사 3장 18절의 내용
 68) 『典經』, 교운 1장 20절의 내용
 69) 『典經』, 교운 1장 32절의 내용
 70) 『典經』, 교법 1장 9절의 내용
 71) 『典經』, 권지 1장 11절의 내용

㉞ 세계의 화평을 위해 일본의 해원 즉 삼한당(三恨堂)의 공사를 보셨다.⁷²⁾

위의 내용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해원은 세계의 평화와 후천선경의 건설을 위한 방법으로 상제께서는 천지인 삼계의 해원공사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실천하셨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해원상생은 선천세계를 광구(匡球)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방법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원을 맺는 일은 억압을 통해 발전을 저해⁷³⁾하는 일이라면 해원은 억압되고 막히었던 것을 통하게 하여 무한한 발전과 발달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해원상생(解冤相生) 도(圖)

참고로 대순진리에서 나타나는 시대관(時代觀)은 포원시대(抱冤時代)·해원시대(解冤時代)·상생시대(相生時代)로 나타나는데 해원의 과정 즉 해원시대는 후천의 상생시대를 이루기 위한 전환기적 과정으로 해석되며 해원시대를 통해 상생시대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원상생은 후천선경을 건설하는데 있어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해원상생은 후천선경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체(要諦)라고 할 수 있다.

72) 『典經』, 예시 74절의 내용

73) 『典經』, 예시 8절의 내용을 참조하면 상제께서는 선천세계에서 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한 근원적인 원인을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여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그로 인해 천·지·인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한다 있다고 지적하셨다. 참고로 대순진리에서 개혁은 발전과 발달을 위한 전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극에 따른 원과 한은 발달을 저해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4. 도통진경(道通眞境)

대순진리의 핵심적 교의는 진멸지경(盡滅之境)에 처한 선천의 현실을 극복하고 상서(祥瑞)가 무르녹는 후천선경을 건설하는데 모든 진리체계가 집약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대순진리는 후천선경건설이라는 커다란 목적하에서 설명되고 해석되어야 마땅할 것인데 도통진경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론적인 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종지의 내용중 마지막에 설정된 도통진경은 도통(道通)과 진경(眞境)을 나타내는 대순진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전술한 종지의 모든 내용이 실현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통진경은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의 모든 이치와 원리, 그리고 그 법리가 집약되어 완성을 이룬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 총체적 모습을 나타낸 용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순진리의 목적에 부합된 결론적인 것이다.

『典經』에서는 이러한 도통과 진경에 관련한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典經』에 나타난 예문을 통해 그것의 내용을 도통(道通)과 진경(眞境)으로 구분하여 도통진경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먼저 도통(道通)과 관련한 『典經』의 구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공우가 어느날 상제를 찾아 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성(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⁷⁴⁾ <예문 1>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공자(孔子)는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五백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 주리니 상제는 七일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재는 二十一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74) 『典經』, 교운 1장 33절

」 하셨도다.⁷⁵⁾ <예문 2>

어느날 상제께서 교운을 굳건히 하시고자 도통에 관해 말씀이 계셨도다. 「지난 날에는 도통이 나지 아니 하였으므로 도가에서 도통에 힘을 기울였으나 음해를 이기지 못하여 성사를 이룩하지 못했도다. 금후에는 도통이 나므로 음해하려는 자가 도리어 해를 입으리라」 고 하셨도다.⁷⁶⁾ <예문 3>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 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⁷⁷⁾ <예문 4>

...궁을가(弓乙歌)에 조선강산(朝鮮江山) 명산(明山)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 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 동학 신자간에 대선생(大先生)이 갱생 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대선생(代先生)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代先生)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도다.⁷⁸⁾ <예문 5>

...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응기하여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⁷⁹⁾ <예문 6>

위에 전술한 <예문>의 공통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선천의 현실을 통해 도통의 필요성과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선천에서는 도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세계이므로 도통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시대라는 것이다. 또한 예문의 내용을 통해 살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구체적인 도통의 원리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도통은 미래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며 미래에 있는 도통은 차등이 없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누구나 닦은 바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므로 도통을 이루지 못해 발생하는 원(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천의 한계를 극복한 내용을 보이는 것이다. 선천에서는 <예문 2

75) 『典經』 교운 1장 34절

76) 『典經』, 교운 1장 40절

77) 『典經』 교운 1장 41절

78) 『典經』, 권지 1장 11절

79) 『典經』, 예시 45절

· 3>에서 보이는 것처럼 도통을 이루는데 한계를 지나는 세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에 대한 원한이 나타나는데 이를 해원하는 것이 도통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해원상생의 법리가 실현되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예문 4>에서 보이는 것처럼 도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통신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신인조화의 법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도통과 관련한 내용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내용은 도통은 조선(朝鮮), 금강산(金剛山)이라는 땅(地) 또는 특정한 지역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예문 5·6>의 내용은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도통은 우리나라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가 도통을 이루는데 있어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⁸⁰⁾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도통을 이루게 하는 주체자가 상제이심을 <예문 5>는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아래의 대순지침은 잘 설명해주고 있다.

상제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언행과 처사가 일치되게 생활화하여 세립미진(細入微塵)이 되고 마음이 무욕청정(無慾淸淨)이 되었을 때 도통진경에 이르니라.⁸¹⁾

다음은 진경(眞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典經』의 내용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겠다.

... 「원(冤)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계발에 역사하였나니라. 이제 그를 해원시켜 고국(故國)으로 데려와서 선경(仙境) 건설에 역사케 하리라」 고 말씀하셨도다.⁸²⁾ <예문 1>

80) 금산사에 상제를 따라갔을 때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천황(天皇) 지황(地皇) 인황(人皇) 후 천하지대금산(天下之大金山) 모악산하(母岳山下)에 금불(金佛)이 능언(能言)하고 육장금불(六丈金佛)이 화위전녀(化爲全女)이라. 만국 활계 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청풍 명월 금산사(淸風明月金山寺) 문명 개화 삼천국(文明開化三千國) 도술 운통 구만리(道術運通九萬里)란 구절을 외워주셨도다 『典經』, 예시 14의 내용을 참조할 때 우리나라는 도술문명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계책을 지니고 있는 나라로 표현되고 있다..

81) 대순지침 39쪽

82) 『典經』, 권지 2장 37절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文化)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썰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⁸³⁾ <예문 2>

금산사에 상제를 따라갔을 때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천황(天皇) 지황(地皇) 인황(人皇) 후 천하지 대금산(天下之大金山) 모악산하(母岳山下)에 금불(金佛)이 능언(能言)하고 육장금불(六丈金佛)이 화위전녀(化爲全女)이라. 만국 활계 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청풍 명월 금산사(淸風明月金山寺) 문명 개화 삼천국(文明開化三千國) 도술 운통 구만리(道術運通九萬里)란 구절을 외워주셨도다.⁸⁴⁾ <예문 3>

...도통천지보은(道通天地報恩)...⁸⁵⁾ <예문 4>

후천에서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⁸⁶⁾ <예문 5>

후천에서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지내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⁸⁷⁾ <예문 6>

위의 <예문>의 내용은 진경(眞境) 즉 후천선경을 이루는 방법과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진경을 이루는 방법에 관련해서는 <예문 1·2·3·4> 가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진경을 이루는 방법과 기초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도통신과 문명신이 그것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상제께서는 후천선경을 건설하기 위해 그 역사를 담

83) 『典經』, 예시 12절

84) 『典經』, 예시 14절

85) 『典經』, 예시 88절

86) 『典經』, 예시 80절

87) 『典經』, 예시 81절

당하는 문명신과 도통신을 통해 그것을 이루게 하였으며, 이것을 유추하여 해석하면 도통신은 정신문명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며 문명신은 물질문명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을 때 후천문명의 총체적인 결과는 정신과 물질문명의 조화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음양합덕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선천세계가 진멸에 처한 원인을 상제께서는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부조화에서 나타남을 지적하셨듯.⁸⁸⁾ 이러한 폐단을 근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후천선경을 건설하는 기초적인 원리는 선천문화의 정수를 합쳐 완성을 이루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후천선경이 결국 만인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어느 특정한 국가나 민족이 우선되는 것이 아닌 세상사람 누구나가 부담감없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라는 점이다.

<예문 4·5·6>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후천선경 즉 진경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데 예문의 내용을 종합하면 후천선경은 선천과는 다른 세계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천이 상극으로 인한 원한이 점철되었던 시기라고 한다면 후천은 그와 반대로 해원과 상생을 실현하는 시대이며, 신명과의 조화를 통해 인간이 불로불사를 누리며 장수하는 사회이며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되어 인존(人尊)을 실현하는 진경임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도통진경의 내용은 종지의 실현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면서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대순진리의 이상과 목적을 나타내는 결과론 적인 내용이 그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88) 『典經』, 교운 1장 9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어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라고 선천세계가 진멸에 처한 원인과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Ⅲ. 종지의 실천방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종지는 대순진리를 크게 4가지의 형태로 요약한 것으로 이해되며, 그러한 종지의 이해는 대순진리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순진리는 단순히 사상체계를 전달하는데 그 목적성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사상의 확산 다시 말하면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천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지의 인식을 기초로 한 실천방안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대순진리에 나타난 종지를 바탕으로 그것의 실천방안과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종지의 실천방안에 관련한 내용은 『典經』과 도전(都典)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순지침(大巡指針)에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실천방안에 관한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겠다.

1. 음양합덕(陰陽合德)

대순진리회의 수칙에는 음양합덕과 관련한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삼강오륜은 음양합덕 만유조화 차재 도덕의 근원이라. …」라고 표현하여 음양합덕의 구체적인 실천은 삼강오륜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음양합덕은 만유(萬有)를 조화시키는 원리인 것이며, 차재도덕 즉 후천도덕의 기초임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음양합덕의 실천방안은 먼저 삼강오륜(三綱五倫)⁸⁹⁾을 실천하는 것에 그 근본 바

89) 삼강오륜(三綱五倫)은 유교(儒敎)의 도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으로 삼강(三綱)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서 곧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을 말하며, 오륜(五倫)은 인간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인륜으로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군신유의(君臣有義), 부자(父子)사이에는 친애(親愛)가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부(夫婦)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부부유별(夫婦有別), 어른과 어린 사람 사이에는 순서가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장유유서(長幼有序), 봉우(朋友)사이에는 믿음의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봉우유신(朋友有信)을 의미한다.

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삼강오륜은 음양합덕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적 기초를 나타내는 것으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동양사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동양사상에 나타나는 중용(中庸)은 음양합덕과 깊은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용의 골자는 치우치지 않는 마음과 인성의 확보에 있다. 중용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희노애락지미발위지중 발이개중절위지화 중야자 천하지대본야 화야자 천하지달도야)

“기쁘고 노하고 슬프고 즐거운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중이라 이르며 일어나되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和)라 한다.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요, 화라는 것은 천하의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도이다.” 라고 표현하여 중용(中庸)에서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순수한 상태는 순수한 인간 본연의 성(性)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중(中)이라고 했다. 또한 중은 치우치거나 기대지 않는 상태,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성은 원래 어느 한 곳에 집착되거나 구애됨이 없이 지극히 바르고 원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중(中)이기 때문에 온갖 정(情)이 일어나되 절도에 맞을 수 있다. 이를 화(和)라고 한다. 절도는 행위 주체가 놓여 있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마주친 대상에 대응하여 반응하는 가장 타당한 준칙이요 법도이다. 그 준칙에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딱 들어맞는 것이 바로 화(和)인 것이다.

중은 모든 이치가 그 안에 갖추어져 있어 이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이치가 나오기 때문에 천하의 근본이라 했다. 화(和)는 언제 어디서나 가장 타당한 준칙이기 때문에 달도(達道) 즉 천하의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도(道)라고 했다.⁹⁰⁾

또한 『典經』에서는

성(聖) 응(雄)을 겸비하라.⁹¹⁾

마음은 성인(聖人)의 바탕으로 하고 일은 영웅(英雄)의 도락을 취하여야

90) 홍승직 역해, 중용, (서울:고려원, 1994), 112~113쪽

91) 『典經』, 교운 1장 49절

하느니라.⁹²⁾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을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統制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⁹³⁾

라는 내용의 『典經』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음양합덕의 의미와 부합될 수 있는 인간상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성(聖)과 웅(雄)을 겸비한 인간의 모습을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것은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후천(後天)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간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성(聖)과 웅(雄)을 겸비하라.」라는 상제님의 말씀은 서로 상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성과 웅 즉 음양을 합덕하여 치우치지 않는 전인적(全人的)인 인간상의 마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음양합덕의 실천을 강조한 내용이며, 그것은 앞서 살펴본 치우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모나지 않는 원만(圓滿)하고 구족(具足)한 인성(人性)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앞서 살핀 성과 웅을 겸비한 인간상에서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은 앞서 『典經』의 내용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후천에서는 원시반본의 원리에 따라 성과 웅을 겸비한 사람이 정치와 교화를 통제관장하며, 진법(眞法)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순진리의 목적이 후천선경을 건설하는데 모든 교의체계가 집약된다면 마땅히 성과 웅을 겸비한 음양합덕한 인간상은 대순진리에서 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후천에서의 가장 구체적인 인간상의 표현인 것이다. 이는 또한 음양합덕의 실천수행의 당위성과 목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대순지침에서는

92) 『典經』, 교법 1장 23절

93) 『典經』, 교법 3장 26절

『典經』에 “박람박식(博覽博識)이 두렵다.”하셨으니 도인들은 술선하여 전인교육에 힘쓰고 자녀교육에도 충실하라.⁹⁴⁾

라고 표현하여 전인교육의 강조라는 새로운 형태로 현대적 해석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음양합덕의 실천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음양합덕의 목적이 도(道)의 구체적 실현(實現)임을 감안할 때 그것의 실천방안은 인도(人道)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그 내용이 집약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여 그것을 통한 인도(人道)의 실현(實現)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삼강오륜의 실천과 치우치지 않는 인성의 확보를 통한 전인적인 인간완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과 웅을 겸비하라」라는 상제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음양합덕의 실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마음은 성인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한 수양을 행해야 할 것이며, 일을 처리하고 지시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영웅의 도략을 발휘하여 그것을 실현시켜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음양합덕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실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神人調化(신인조화)

앞서 신인조화의 원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신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체이며, 조화(調化)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관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신과의 합일(合一=조화)을 통해 신·인은 완성을 이루게 되며 후천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형태를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신과의 조화적 관계를 설정하는데는 몇 가지의 조건이 전제됨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신인조화의 실천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신인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천방안을 『典經』과 지침의 내용을 통해

94) 대순지침, 104쪽

살펴보겠다.

…인위양(人爲陽) 신위음(神爲陰) 음양상합연후(陰陽相合然後) 유변화지도(有變化之道)…⁹⁵⁾

<예문 1>

…심야자귀신지추기야문호야도로야(心也者鬼神之樞機夜門戶也道路也)⁹⁶⁾

<예문 2>

전쟁사를 읽지마라 전승자의 신은 춤을 추되 패전자의 신은 이를 가나니 이것은 도를 닦는 사람의 주문 읽는 소리에 신응(神應)되는 까닭이 나라.⁹⁷⁾ <예문 3>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 고쳐 쓰리니…⁹⁸⁾ <예문 4>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니라.⁹⁹⁾ <예문 5>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 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¹⁰⁰⁾

<예문 6>

…이제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서 각 사람과 각 가정을 드나들면서 기국을 시험하리라.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에 화기를 잃으면 신명들이 비웃고 큰 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 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 가리니 일에 뜻하는 자가 한시라도 어찌 감히 생각을 소홀히 하리오 하셨도다.¹⁰¹⁾ <예문 7-1>

95) 『典經』, 제생 43절

96) 『典經』, 행록 3장 44절

97) 『典經』, 교법 2장 23절

98) 『典經』, 교법 3장 1절

99) 『典經』, 교법 3장 4절

100) 『典經』, 교운 1장 41절

101) 『典經』, 교법 1장 42절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 가느니라.¹⁰²⁾
 <예문 7-2>

상제께서 「양이 적은 자에게 과중하게 주면 배가 터질 것이고 양이 큰 자에게 적게 주면 배가 고평터이니 각자의 기국(器局)에 맞추어 주리라」고 말씀하셨도다.¹⁰³⁾ <예문 7-3>

<예문 1·2·3·>의 내용은 신인조화를 가능케 하는 근원적인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예문 1>은 신인조화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신인조화를 통해 얻어지는 결론은 변화의도(變化之道)이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신인조화 실천방안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의 구체적 실현의 가능성으로 제시된 <예문 2>는 앞서 언급한 신인조화의 의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신과 인간이 조화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즉 신은 인간의 마음을 통해 접촉되며 그것을 통해 기본적으로 조화적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예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예문 3>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이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신인조화를 이루기 위한 매개적(媒介的) 수단으로 주문(呪文)이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즉 주문은 신과의 접촉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그것을 통해 신인조화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유추하여 본다면 주문을 통해 신과의 접촉을 이루고 그러한 과정이 완성이 되면 신명이 <예문 4·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인간과의 구체적인 접촉을 통해 인간을 변화시켜 바람직한 상태로 이끌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신인조화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신명을 통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킨다는 사실은 신인조화의 의미를 살피는데 있어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

102) 『典經』 교법 2장 17절

103) 『典經』, 교법 2장 54절

그런데 이러한 신인조화의 실천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주문(呪文)을 통한 방법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문 6>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예문 6>의 내용은 신인조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발적인 심신수도(心身修道)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신인조화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적(修道的)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것의 성취정도에 따라 거기에 해당하는 신명과의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예문 4·5>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예문 4·5>의 내용이 신명에 의한 타력적(他力的)인 접촉방법이라면 <예문 6>은 신명과의 접촉을 위한 자력적인 노력의 강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신인조화를 위한 실천방안에는 크게 자력적인 방법과 타력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예문 7-1·2·3>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국(器局)¹⁰⁴⁾과 관련된 공통적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기국은 신명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나타나며, 기국의 정도에 따라 신명과의 조화능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국은 수도나 수양을 정도를 나타내는 표식(標識)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기국을 확대하는 일은 신명과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과 매개(媒介)가 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종합해 볼 때 신인조화를 위한 실천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며 초점이 맞추어 지는 부분은 기국에 관련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국을 늘이는 일은 신인조화를 위한 실천방안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기국은 양적(量的)인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현대적인 시각에 맞추어 해석한다면 컴퓨터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컴퓨터의 질(質) 또는 성능(性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와 다양한 정보와 그를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저장할 수 있

104) 일반적으로 기국(器局)은 사람의 도량(度量)과 재간(才幹)을 의미하는 것이나, 대순진리에서 의미하는 기국은 수양과 수도의 정도에 따라 신명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는 용량이라고 가정해 볼 때 다양한 기능의 활용과 처리를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정보와 그를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갖출 수 있을 때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컴퓨터의 위용을 갖출 수 있는 것처럼 기국은 다양한 능력과 특징을 갖추고 있는 신명과의 접속을 가능케 하는 능력 즉 기반(基盤)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기국의 확대는 신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되는 것이며 그것의 확대는 신인조화의 실천방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신명과의 접속(接續)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典經』과 대순지침에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크고 작은 일을 천지의 귀와 신이 살펴시니라(大大細細 天地鬼神垂察).” 하셨으니, 도인들은 명심하여 암실기심(暗室欺心)하지 말아야 한다.105)

『典經』에 “사람의 마음은 신의 중요한 용사기관이요 신이 출입하고 왕래하는 길이라(心也者鬼神之樞機也 門戶也 道路也).”하셨으니 마음의 발로(發露)에 사심(邪心)을 버리고 예법에 합당케 행하는 것이 안심(安心)이다.106)

“성(性)은 마음이 밝아져야 천품성을 깨닫는다(開心見性)”하였으니, 참된 성품을 살펴서 허망한 일을 하지 않는(眞實無妄) 지성(至誠)에 이르면 신(神)과 같아지느니라.107)

도인들은 항상 어디서나 신명의 수찰이 있음을 명심하고 속임과 거짓이 없이 도인의 본분을 바로 지켜야 한다.108)

위의 내용은 신명과의 합일을 위한 구체적인 몸과 마음의 상태와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데 이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내용은 무자

105) 대순지침 28쪽

106) 대순지침 48~49쪽

107) 대순지침 75쪽

108) 대순지침 39쪽

기(無自欺)와 인간이 본성을 회복을 상태에 이를 때 신과의 접촉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본성을 회복하고 그 본성에 따라 움직일 때 거짓이 없고 사심이 없는 상태인 무자기를 이룰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신명과의 접촉을 위한 조화가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성의 회복을 통한 무자기의 실현은 신인조화를 위한 실천방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키(key=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살핀 내용을 실천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때 신인조화가 가능한 것이며 그와 관련한 내용은 신인조화를 위한 실천방안의 대표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3. 해원상생(解冤相生)

해원상생의 실천방안은 서로가 맺힌 원을 풀고 상생 조화할 수 있는 노력을 말하는 것으로 해원상생 실천의 이유와 당위성은 앞서 전술한 내용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典經』과 대순지침을 통해 살펴보겠다.

해원(解冤)은 척(憾)을 푸는 일이며 척을 맺는 것도 나요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풀므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되니, 양편의 척이 풀려 해원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¹⁰⁹⁾ <예문 1>

…해원시대이므로 덕을 닦고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하라. …¹¹⁰⁾ <예문 2>

…후천해원시대를 당하여 악을 선으로써 갚아야 한다. …¹¹¹⁾ <예문 3>

해원상생·보은상생은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남을 잘되게 하라”는 진리이니, 화합·단결·상부상조를 강조하고 그것을 실천토록 교화하라.¹¹²⁾ <예문 4>

109) 대순지침 27쪽

110) 『典經』, 교법 2장 20절

111) 『典經』, 교법 3장 15절

112) 대순지침 27쪽

神明公判(神明公判(公判))이란 운수를 받는 자리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과정에서 먼저 받게 되므로, 상제께서도 “나는 해마(解魔)를 위주하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복마(伏魔)의 발동이 있으니 복마의 발동을 잘 견뎌야 해원하리라.”고 타이르셨으니 깊이 명심하라.¹¹³⁾ <예문 5>

내 경위만 옳고 남의 주장을 무시하는데서 반발을 일으켜 서로 미워하다가 마침내 원한을 풀어 척을 맺는 법이다.¹¹⁴⁾ <예문 6>

포덕(布德)은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양 원리인 대도의 이치를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다.¹¹⁵⁾

<예문 7>

위의 내용중 <예문 1>은 해원상생 실천을 위한 원론적(原論的)인 방안을 설명하고 있으며, <예문 2·3·4>은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양한 실천내용을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예문 2·3>의 내용에서는 해원상생의 구체적인 실천이유가 해원시대를 맞이하는데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해원상생의 실천은 결과적으로 후천의 상생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윤리·도덕적 위상을 정립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면서 실천적 당위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후천의 상생시대를 맞이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함을 <예문 5>는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예문 6>은 원(冤)과 척(慝)이 맞히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그것의 경계(警戒)를 나타내고 있으며 <예문 7>에서는 원과 척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방안으로서 포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선천에서 원한이 발생한 원인을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 즉 이기심(利己心)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잘되게 하고 이롭게 하는 이타심(利他心)의 발휘는 해원을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포덕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덕(布德)은 덕을 편다는 뜻으로 그것은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양 원리

113) 대순지침 94쪽

114) 대순지침 27쪽

115) 대순지침 19쪽

인 대도의 이치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면서, 인도(人道)를 선도하여 윤리 도덕의 상도(常道)를 이룩하는 것이다.¹¹⁶⁾ 라고 그 구체적인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것의 실천 방법으로는 겸허(謙虛)와 지혜의 덕으로 사(私)로 인하여 공(公)을 해치지 말고 보은의 길을 열어 주는 것.¹¹⁷⁾ 임을 강조하면서 포덕은 『典經』을 바탕으로 하여 상제님의 대순하신 광구천하의 진리로 구제창생기 위한 대인접촉이다.¹¹⁸⁾ 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포덕이 종교의 외적활동 다시 말하면 포교행위(布教行爲)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해원상생 대도의 참뜻을 전하는 것이 포덕이며, 포덕천하(布德天下)가 되어야 광제창생이 되는 것¹¹⁹⁾ 임을 역설하면서 그것이 실현될 때 상제님께서 광구천하(匡救天下)와 광제창생 하시려고 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널리 알려 지상낙원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이다.¹²⁰⁾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포덕의 내용에서는 우주를 주재하신 권능의 주인으로서 상제의 무량(無量)하신 덕화와 무변(無邊)하신 권지의 소유주(所有主)이심이 널리 알려야 하며¹²¹⁾ 포덕은 덕화의 선양이기 때문에 덕화에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¹²²⁾ 덕화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언사나 처사로 행동하여 덕화손상을 시키지 말아야 하며¹²³⁾ 남의 비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포덕의 한 방편이 되는 것이다.¹²⁴⁾ 라고 포덕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원상생의 실현방안에는 성경신(誠敬信)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대순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성·경·신으로 해원상생을 이루며 생사판단도 결정되는 것이며,¹²⁵⁾ 성(誠)은 사람의 정·기·신(精氣神)¹²⁶⁾의 합일의 진성(眞誠)이며,¹²⁷⁾ 성(誠)은

116) 대순지침 19쪽

117) 대순지침 19쪽

118) 대순지침 21쪽

119) 대순지침 21쪽

120) 대순지침 21쪽

121) 대순지침 21쪽

122) 대순지침 22쪽

123) 대순지침 22쪽

124) 대순지침 22~23쪽

125) 대순지침 54쪽

126) 인간의 정수(精髓)와 기분(氣分)과 심신(心身)을 말한다.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민중서림 1982), 3238쪽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다.¹²⁸⁾라고 그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경(敬)은 예의범절을 갖추어 처신처세하는 것이며,¹²⁹⁾ 모든 일이 내심의 소정(所定)에 따라 표현되는 것이다.¹³⁰⁾라고 경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신(信)은 『典經』에 “농부가 곡식 종자를 갈무리하여 두는 것은 토지를 믿는 까닭이라”하셨으니 가식(假飾)이 없는 신앙의 본의(本意)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는 뜻¹³¹⁾ 이라고 설명하면서 자각이 없으면 확신이 서지 않는 것¹³²⁾ 이므로 일관성의 믿음을 사실화하여 삼계삼법(三界三法)의 성·경·신으로 자아대성(自我大成)을 위한 작업이 신(信)인 것이다.¹³³⁾ 라고 그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이 국가를 믿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될 것이며¹³⁴⁾ 수도자가 믿음이 부실하면 결과적으로 난법난도자가 된다.¹³⁵⁾는 점을 강조하여 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포덕·교화·수도 및 모든 일이 성·경·신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¹³⁶⁾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원상생 실천을 위한 방안의 내용은 대단히 다양한 것이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 내용이 포덕을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듯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포덕은 대순진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천하포덕(天下布德)과 깊은 관련을 지니는 내용이기도 하다. 아래의 『典經』내용은 이러한 사실과 그 실천적 당위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본다.

127) 대순지침 51쪽
 128) 대순지침 51~52쪽
 129) 대순지침 52쪽
 130) 대순지침 52쪽
 131) 대순지침 53쪽
 132) 대순지침 53쪽
 133) 대순지침 53쪽
 134) 대순지침 53쪽
 135) 대순지침 53쪽
 136) 대순지침 54쪽

상제께서 하루는 김 형렬에게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혁하고 후천선경(後天仙境)을 열고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 137)

4. 도통진경(道通眞境)

도통진경은 앞서 전술한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의 원리와 내용이 적용되고 조화를 이룬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이들의 모든 내용이 내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살필 수 있을 것인데, 이 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도통진경의 실천원리를 도통진경에 이르는 과정과 구체적인 방법 즉 수도적 노력에 관련한 내용으로 대별하여 살펴보겠다.

보라 선술을 얻고자 십년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그의 성의로 하늘에 올림을 받은 머슴을. 그는 선술을 배우고자 스승을 찾았으며 그 스승은 선술을 가르치기 전에 너의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하니라. 그 머슴이 십년 동안의 진심갈력(盡心竭力)을 다한 농사 끝에야 스승은 머슴을 연못가에 데리고 가서 「물위에 뻗은 버드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물위에 뛰어 내리라. 그러면 선술에 통하리라」고 일러주었도다. 머슴은 믿고 나뭇가지에 올라 뛰어내리니 뜻밖에도 오색 구름이 모이고 선악이 울리면서 찬란한 보연이 머슴을 태우고 천상으로 올라가니라. 138)

<예문 1-1>

... 「나의 일은 여동빈(呂洞賓)의 일과 같으니라. 그가 인간의 인연을 찾아서 장생술을 전하려고 빗장사로 변장하고 거리에서 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흰 머리가 검어지고 굽은 허리가 곧아지고 노구가 청춘이 되나니 이 빗 값은 천냥이로다 외치니 듣는 사람마다 허황하다하여 따르는 사람이 없기에 그가 스스로 한 노구에게 시험하여 보이니 과연 말과 같은지라. 그제야 모든 사람이 서로 앞을 다투어 모여오니 승천하였느니라.」 139) <예문 1-2>

137) 『典經』, 예시 17절

138) 『典經』, 예시 83절

139) 『典經』, 예시 61절

... 「이것이 남조선 뱃길이니라. 혈식 천추 도덕 군자가 배를 몰고 전명숙(全明淑)이 천혈식하여 만인의 추앙을 받음은 모두 일심에 있나니라. 그러므로 일심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배를 타지 못하리라.」 고 이르셨도다.¹⁴⁰⁾ <예문 1-3>

도를 닦는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멩치기에 죽어도 흠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 하리라.¹⁴¹⁾ <예문 1-4>

위의 『典經』의 <예문>은 도통에 이르는 구체적인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문 1-1·2>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이것은 대순진리의 목적인 인간의 신선화 실현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면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정성을 다하는 진심갈려(盡心竭力)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것을 이룬 연후에 의심이 없는 믿음(信)을 갖출 수 있는 것이며 확고한 믿음을 갖출 수 있을 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신선이 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도통진경의 신선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실천원리로 믿음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예문 1-3>의 내용은 확고한 믿음과 깊은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는 일심(一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남조선(南朝鮮)¹⁴²⁾에 동참을 위해서는 일심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예문 1-4>의 내용은 대단히 특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수도적인 노력은 생사(生死)에 관련없이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수도의 과정이 전제될 때 천상(天上)에 오를 수 있는 것이며, 죽어서도 자신의 근원적 존재인 정혼(精魂)¹⁴³⁾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매우

140) 예시 50절

141) 교법 2장 27절

142) 남조선사상은 정감록사상(鄭鑑錄思想), 신도읍사상(新都邑思想), 십승지사상(十勝地思想)등과 함께 시운(時運)에 의해 낡은 왕조 또는 세계가 물러가고 새로운 왕조나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상으로 난세(亂世)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와 유토피아를 염원하는 대망사상(待望思想)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내용이다.

143) 육체를 떠난 죽은사람의 혼백(魂魄)을 가리키는 것으로, 만물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불가사의 한 기운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생명력의 근원을 이루는 신성(神聖)하고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자유자재한 영혼을 말한다. 이희승 편저, 앞의 책, 3262참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앞서 전술한 음양합덕과 신인조화의 내용을 감안해 볼 때 후천세계는 신과 인간의 구분과 영역이 따로 없는 세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 수도를 하다가 그 목적인 도통을 이루지 못하고 죽더라도 수도의 결과로 인해 자신의 근원적 존재인 정혼이 보존되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그 결과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순진리의 미래관(未來觀)¹⁴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은 대순지침에 나타난 내용을 근거로 도통진경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 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¹⁴⁵⁾
 <예문 2-1>

수도의 목적은 도통이니 수도를 바르게 하지 못 했을 때는 도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¹⁴⁶⁾ <예문 2-2>

도통은 도인들 자신의 수도 여하에 달려 있느니라.¹⁴⁷⁾ <예문 2-3>

도통은 선후의 차등이 없고 오로지 바르게 닦느냐의 여부에 있을 뿐이다.¹⁴⁸⁾ <예문 2-4>

수도는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인데 이것을 어기면

144)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내세(來世) 또는 미래관(未來觀)이라고 할 수 있는 후천 세계는 기존의 종교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사후(死後)에 이루어지는 내세관(來世觀)과는 차이가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음양합덕 신인조화라는 교리체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후천세계는 신과 인간의 구분이 없는 세계다 시 말하면 신인이 합쳐진 세계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천세계와는 달리 생사에 따른 의식구분을 할 수 없는 불로불사의 세계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존의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사후적 미래관이 나타나 있지 않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미래관(未來觀)으로 표현하였다.

145) 『典經』 교운 1장 41절

146) 대순지침 37쪽

147) 대순지침 37쪽

148) 대순지침 37~38쪽

도통을 받을 수 있겠는가¹⁴⁹⁾ <예문 2-5>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른다¹⁵⁰⁾ <예문 2-6>

상제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 언행과 처사가 일치되게 생활화하여 세립미진(細入微塵)이 되고, 마음이 무욕청정(無慾淸淨)이 되었을 때 도통진경에 이르니라.¹⁵¹⁾

<예문 2-7>

임원들은 수반도인에 대한 교화를 인정이 넘치고, 신뢰가 감돌아 허세를 부리지 말고, 안색은 화기롭게 편안한 장소에서 안정한 시간을 택하여 부담이 없는 대화로써 신앙심을 높여 진리 도통의 진경에 이르도록 계도하는 것이다.¹⁵²⁾ <예문 2-8>

위의 내용중 <예문 2-1>은 도통진경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원론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통을 위해서는 대두목¹⁵³⁾으로부터 부여받은 도통하는 방법에 따라 심신의 수도를 행하면 도통될 때에 유불선 도통신과의 조화를 통해 도통을 이루게 된다는 신인 조화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특징적 내용을 감안할 때 대두목이 정한 수도의 방법이 우선되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다.

대두목은 그 특성상 종통(宗統)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도통진경의 실천방안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종통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것의 전제(前提)가 없이는 도통진경의 실천방안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제님으로부터 종통을 계승한 종통계승자의 가르침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예문 2-2·3·4>의 내용은 도통을 위해서는 수도의 중요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수도(修道)라는 원인 또는 과정이 우선되어 실천될 때 그 결과인 도통을 이룰 수 있다는 인과(因果)를 나타내는

149) 대순지침 37쪽

150) 대순지침 38쪽

151) 대순지침 39쪽

152) 대순지침 45쪽

153) 대두목은 구천상제님으로부터 도통하는 방법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대순진리에 서는 종통계승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것이면서 이것은 음양합덕의 원리를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리고 <예문 2·5·6·7·8>의 내용은 수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에서 수도는 「인륜도덕을 밝혀 나가는 것」이며,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상제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대표적인 수도의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도통진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심우도(尋牛圖)¹⁵⁴에는 도통진경과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의 내용은 목동(牧童)이 소등 위에 올라타서 자유스럽게 피리를 부는 그림이다. 일반적으로 소(牛)는 도(道)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심우도(尋牛圖)에서 소(牛)가 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곧 도와 사람을 일체로 표현한 것으로 아즉도(我卽道) 도즉아(道卽我)의 경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대순진리회 요람(要覽)에는 아즉도 도즉아의 경지(境地)를 정각(正覺)하고 일단(一旦) 활연(豁然) 관통(貫通)하면 삼계(三界)를 투명(透明)하고 삼라만상(森羅萬象)의 곡진이해(曲盡理解)에 무소불능(無所不能)하나니 이것이 영통(靈通)이며 도통(道通)인 것이다.¹⁵⁵ 라는 내용에서 이해되는 것처럼 심우도에서 의미하는 도통진경은 도를 통할 수 있는 참된 경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앞서 전술한 수도의 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로 나타난 경지임을 짐작할 수 있다.

154) 심우도(尋牛圖)는 “소를 찾는 그림”으로 목동(牧童)이 소를 찾아가는 과정을 수도하는 과정에 비유하여 상징적 그림내용을 통해 수도인의 입도(入道)→수도(修道)→성도(成道)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로 심우도는 ① 심심유오(深深有悟) ② 봉득신교(奉得神敎) ③ 면이수지(勉而修之) ④ 성지우성(誠之又誠) ⑤ 도통진경(道通眞境) ⑥ 도지통명(道之通明)의 6단계로 그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155) 대순진리회 요람, 9쪽 참조.

IV. 맺 음 말

종지는 대순진리의 함축적인 요약과 함께 그것을 명쾌하게 관통하는 면을 확연하게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대순진리의 특징이 후천선경을 건설하는데 집약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면서, 종지의 연구를 통해 한층 더 가깝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기도 했다. 이러한 결론은 종지의 중요성과 대순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방향을 지적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앞서 전술한 음양합덕(陰陽合德)은 대순진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음양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시각에서 설명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적 특징은 우리에게 방대한 대순진리의 교리체계를 가장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석의 틀과 구도를 갖추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음양합덕은 선천의 현실이 진멸에 처한 원인을 음양의 불균형으로 파악하고 그것의 균형과 조화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내용이 그 핵심이었는데, 그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큰 구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음양합덕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을 내세워 그것을 통해 도통진경의 목적을 실현시킨다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신인조화(神人調化)의 내용은 신과 인간이라는 보다 더 구체적인 대상에 주목하여 상세한 원리의 전개를 통해 전체의 구도 속에서 목적실현의 가능성에 관한 일 단면을 소개하였고 그것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해원상생(解冤相生)은 목적실현을 위한 가장 근원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도통진경(道通眞境)은 대순진리의 결과론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목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대순진리에 나타난 종지는 결국 대순진리의 함축적인 요약과 함께 그것을 명쾌하게 관통하는 면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대순진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종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종지는 대순진리의 특징을 세분화시켜 종지라는 종교학적 구조를 통해 그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대순진리라는 방대한 교리체계에 접근을 가능케 하는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순진리는 종지를 통해 명확한 배분이 가능하고 세분화된 내용의 이해를 통해 보다 쉽게 대순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 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종지는 단순히 진리의 배분적 특징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종지가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관련적 특징은 대순진리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에 기초하여 대순진리를 등분하면 그 결과는 종지로 나타나며, 그것은 대순진리의 목적을 바탕으로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음양합덕은 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모든 종지의 내용과 각각의 긴밀한 관련성이 있음을 살필 수 있었고, 다른 여타의 종지도 마찬가지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종지와 종지는 상호 충분한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으며, 그 고리의 연결을 통해 종지의 개별적인 내용이 바르게 설명되고 이해가 명확해 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순진리는 각각의 교리체계가 명확하게 구분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독립적으로 구분해서는 바른 해석을 시도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교리는 독립적으로 그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상호 긴밀한 관련과 연결속에서 서로에게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그것을 바르게 나타내며, 이해시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종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순진리의 핵심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부터 각각의 교리체계가 분할되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종지는 대순진리를 각각의 사상체계로 나누는 중간의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상제께서 펼치신 대순진리는 결국 도주님에 의해 종교적 특성과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종지는 그 종교적 특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상제님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바르게 펼치시고 훈육(訓育)하시기 위해 종지를 통해 대순진리의 핵심과 지향(志向)해야 할 방향을 명확히 천명하시기 위해 종지를 설정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도주께서 상제님의 종통을 계승하신 증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종지가 지니고 있는 내용의 이해를 통해 그것의 특징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종통이라는 중대한 명제를 바르게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도주님께서 제창한 종지의 내용은 결국 도주님께서 종통계승자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순진리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종지의 구성과 성립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종지의 가치인식에 관련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종통을 인식하는 기초가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듯 종지는 단순히 교리체계를 압축한 내용보다는 종교학적 구조체계로 살펴볼 때 종지 그 자체가 또 다른 독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할 때 앞으로도 종지와 관련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다각적 연구와 분석의 노력이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기대해 본다.